

다니엘서 - 번호 145

성경의 예언과 현재 사건의 해석: 현대 정치와 종교적 상징성에 대한 관점

Jeff Pippenger

2024-03-19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2015년에 대통령 출마 의사를 표명할 때 워크이즘이라는 종교(소돔)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애굽)가 대두하였으며, 그는 정치적 증언을 마친 뒤 2020년에 죽임을 당했다. 교황은 예언적 사흘 반 동안 그의 사탄적 증언을 한 뒤, 1798년에 예언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교황이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가리킨다.

인자야, 네 얼굴을 애굽 왕 바로를 향하게 하고 그와 온 애굽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한가운데 누워 있으면서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하는 큰 용이로다. 에스겔 29:2, 3.

애굽은 큰 용이며, 바로의 무신론은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과 21세기의 세계주의를 예표한다. 그 세계주의는 21세기의 땅의 짐승의 영역 안에서 민주당으로 대표된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적하신다고 밝히고, 같은 장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북방 왕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밝힌다. 그 북방 왕은 본문에서 느부갓네살로 지칭되며, 마지막 때의 거짓 북방 왕을 대표한다. 그 거짓 북방 왕은 교황권이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으며 감당한 노고에 대한 삯으로 애굽을 북방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밝히신다.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가 임하는 때에 애굽을 교황에게 주실 것이라고 밝히신다.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대적하여 그의 군대로 큰 수고를 하게 하였으니, 모든 머리는 벗겨지고 모든 어깨의 살갓이 벗겨졌으나, 그가 그것을 대적하여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하여 그도 그의 군대도 두로 때문에 삯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애굽 땅을 주리니, 그가 그 무리를 사로잡고 전리품을 취하며 노략물을 취할 것이요, 그것이 그의 군대의 삯이 되리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그가 그것을 대적하여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뿔이 돌아나게 하고,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9:17-2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뿔을 돌아나게" 하시는 그 "날"은 늦은 비가 뿌려지기 시작한 2001년 9월 11일이다. 그때 주께서는 파수꾼들을 일으키시며 셋째 화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서 네 입을 여는 일"을 내게 주실 것을 그분이 분명히 하셨기 때문이었다. "한가운데"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늦은 비의 뿌려짐과,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지시는 일요일 법령에서 그 뿌려짐이 종결되는 때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그 두 이정표, 곧 두 증인 또는 두 뿔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2020년에 둘 다 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들의 증언을 하였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증언을 하였고, 죽임을 당한 후에는 여덟째로, 곧 일곱 중에 속한 자로서 살아났다. 그들은 무신론(애굽)과 부도덕(소돔)의 용의 권세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상으로 애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북방 왕이 미국의 영화로운 땅을 점령할 때, 그는 이어서 애굽을 취하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을 위하여 행한 봉사에 대한 그의 샅이기 때문이다.

앗수르여, 너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들의 손에 든 지팡이는 내 분노다. 내가 그를 위선적인 나라를 치도록 보내고, 내 진노를 받는 백성을 향하여 그에게 명하여, 탈취하게 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리라. 이사야 10:5, 6.

아시리아인은 북방의 왕으로서, 말세의 거짓된 북방의 왕인 교황권을 대표한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곧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게 심판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앗수르로 사로잡혀갔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언약과 여호와와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7:7, 11, 14-16, 20, 23; 18:12.

열 지파 위에 임한 두려운 심판들 속에서도 주님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목적이 있었다. 그분이 그들의 조상의 땅에서 그들을 통해 더 이상 이루실 수 없게 된 일을,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어짐으로써 이루고자 하셨다. 인류의 구주를 통해 주어지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성취되어야 했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환난 가운데서 그분은 자신의 영광이 땅의 민족들에게 나타나게 될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사로잡혀 간 자들 모두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충실하게 남아 있던 이들도 있었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춘 이들도 있었다. 그분은 이들,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호세아 1:10)을 통해 앗수르 왕국의 무리들에게 자신의 성품과 그분 율법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려 하셨다. 선지자와 왕들, 292쪽.

주님은 북방의 왕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성경에 따르면 그 북방의 왕들을 대하실 때 그분이 따르신 원칙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집에 머물러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샅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누가복음 10:7.

주께서는 곧 임박한 일요일법령 때에 미합중국이 그들의 은혜의 시기의 잔을 가득 채울 때, 그 나라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교황권을 사용하시며, 그분의 보수는 교황권이 행한 봉사에 대한 대가로 애굽을 교황권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애굽이 교황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다니엘서 11장 42절과 43절이 이 사실을 확증한다. 교황이 행한 봉사에 대한 보수는 열 왕들이 들어 높이는 머리가 되어 전 세계적 짐승의 형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용의 세력을 이긴다. 이는 그가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의 때에, 여덟째 머리, 곧 일곱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2020년에 트럼프를 죽였던 용의 세력—의 몰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낙타의 등을 꺾는 지푸라기'는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이다. 2023년 10월 7일의 그 공격은 그 지지 기반 내부에 썩기를 박았는데, 이는 열방을 분노케 하고 곤궁하게 하는 이슬람의 역할로밖에는 돌릴 수 없다. 이는 추가적인 공격들을 동반하여 더 큰 분열을 낳을 것이나, 동시에 용의 세력이 풀어놓은 불법 이민의 범람의 어리석음을 인식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시민 한 계층을 결집시킬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나, 그 위기는 이미 도래하였다.

그때 큰 미혹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러한 재난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 그 부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자체가 범법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이 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곤경을 탓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고 선포될 것이며, 이 죄 때문에 재난이 임했고 일요일 준수에 엄격히 강요되기 전에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넷째 계명의 요구를 제시하여 이로써 일요일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서,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과 현세적 번영을 회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처럼 옛날 하나님의 종에게 가해졌던 비난이 동일하게 확고한 근거 위에서 다시 반복될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와 그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열왕기상 18:17, 18. 거짓 고발로 백성의 분노가 부추겨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배도한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대하던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대쟁투, 590.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현세적 번영'이 거두어진 이유로 지목될 것이다. 우리 앞에 임박한 이 시기를 설명하면서 그녀는 엘리야가 아합과 대면했던 일을 언급한다. 그들이 서로를 비난한 일은 갈멜산 사건 이전에 있었다.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 이전에, 점점 격화되는 심판으로 인해 현세적 번영과 하나님의 은총은 거두어진다. 방금 인용한 구절은 일요일 법령 시험의 때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키지만, 시험의 때는 두 차례 있다.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짐승의 우상에 대한 시험은 그 후 온 세상에서 반복된다. 그 구절에 묘사된 모든 사건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세계적 일요일 법령 위기의 역사 속에서 예언적 성취를 이룬다.

『증언들』 제9권의 첫 문단은 11쪽에서 시작하며, 따라서 "NINE-ELEVEN"을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시대의 표징들이 신속히 성취되어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가까웠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날들은 엄숙하며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히 이 땅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위에 재앙들과 심판들이 이미 임하고 있다. 육지와 바다에서의 재난들, 사회의 불안정한 상태, 전쟁의 경보들은 중대한 사태를 예고하는 징조들이다. 그것들은 지극히 중대한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다." 서술이 계속되어 14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사회의 현 상태의 기저에 있는 원인들을 이해하는 이들은, 교육자들과 국가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지 않다. 국정을 맡은

자들은 도덕적 부패, 빈곤과 극빈, 그리고 증가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경제 활동을 보다 안정된 토대 위에 올려놓고자 헛되이 분투하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들의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세상 상태를 묘사한다. 강탈과 착취로 막대한 부를 모으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의 품삯을 너희가 속임수로 떼어두었으므로 그 품삯이 부르짖고, 추수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으며, 도살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3-6절.

말세에 사람들은 '사업 운영을 보다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 헛되이 애쓰고 있다.' 민주당과 그들의 선전 기구,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은행가들 역시 헛수고를 하고 있으며,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실제 금융 안정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세상'의 상징 가운데 하나는 '강도와 갈취'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화이트 자매가 인용한 야고보서의 구절들 앞에 오는 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자, 이제 너희 부요한 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재난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고, 그 녹이 너희를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는 마지막 때를 위해 보화를 쌓아 두었다. 야고보서 5:1-3.

말세의 한 예언적 특징은 사기적 수단으로 축적된 막대한 부로 알려진 자들이 존재하는 때라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매일같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 때가 이미 왔다. 그때, 그 세계적 은행가들과 억만장자들의 재물은 녹슬게 되는 금과 은으로 표상된다. 금과 은은 본래 녹슬지 않으므로, 성경은 말세에 부자들의 재물에 일어나는 전혀 뜻밖의 일을 지적한다. 곧 그들의 금과 은이 녹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경제 붕괴의 전조는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가 도래함과 함께 나타났다. 셋째 화의 이슬람은 성경 예언에서의 동풍이며, 말세에는 바로 그 동풍이 다시스의 배들로 표상된 경제를 침몰시킨다.

보라,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당황하여 급히 물러갔다. 거기에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나이다. 시편 48:4-7.

셋째 화의 이슬람에 의해 촉발된, 산고하는 여인과 같이 격화되는 열방의 진노를 표상하는 동풍이 다시스의 배들을 침몰시킬 때, 글로벌리스트 왕들, 억만장자들 및 은행가들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번민한다. 이슬람은 지역적 및 세계적 경제를 붕괴시키고, 민주당과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 트럼프의 강점에 완벽히 부합하는 경제적·정치적 환경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는 '제공된 봉사'의 대가로 일곱에 속한 여덟째 머리에 용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트럼프를 사용하여 헬라의 온 영역을 격동시키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될 정황을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현재 글로벌리스트들이 운영하는 경제 체제는 다가오는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을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선출된 민주당 소속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중 처음 도입되었지만, 그는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른 대통령이 되었다. 윌슨은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을 추진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재임 기간인 1913년, 윌슨이 국가 경제 운영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관리 하에 두면서 미국의 금융 구조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갔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대통령의 예언적 특징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국제연맹의 단일 세계 정부를 추진한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었으며, 미국의 재정을 세계의 은행가들에게 넘기는 일을 주도했다. 그는 1913년부터 1921년까지 재임했다. 1919년에 세상과의 타협으로 상징되는 재림주의의 제3세대는 윌슨의 세상과의 타협과 병행했다. 이는 두 뿔이 서로 병행하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제3세대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영적 주권 바깥에 있는 자들의 손에 의료와 교육 체계의 통제권을 넘겨주었다. 동시에 윌슨은 미국의 재정 주권을 글로벌리스트 은행가들에게 넘겨주었고, 미국의 정치적 주권을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넘기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제3차 세계대전을 나타내는 예언적 특성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주권이 아니라 글로벌리스트 의제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데 관여한 역사를 대표한다. 그는 신세계질서가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이 되는 목표를 마침내 달성할 때, 비록 그들의 통치는 짧지만,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을 대표한다. 이 사실은 두 증거에 의해 확립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 가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윌슨의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즉시 국제연합에 가입한 일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 두 증거를 근거로, 곧 다가올 주일법은 그 여파로 국가적 파멸을 초래하며, 글로벌리스트들이 우드로 윌슨의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추진해 온 단일 세계 정부로서 국제연합이 시행되도록 이끈다.

일곱에 속한 여덟째이자 마지막 대통령의 임기에는 이러한 예언적 특징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윌슨의 뒤를 이은 공화당원 워런 하딩은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시기를 열었고, 그것은 1929년 대폭락으로 이어졌으며, 대공황으로 이어졌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트럼프의 첫 임기는 '광란의 20년대'였고, 바이든은 땅의 짐승 역사상 가장 큰 대공황을 막 불러오려 하고 있다. 그 대공황은 1929년의 대폭락으로 상징되었을 뿐 아니라 엘렌 화이트 시대의 '1837년 공황'으로도 상징되었다.

미국에서 1830년대에 발생한 불황은 일반적으로 '1837년 공황'으로 불린다. 이는 1837년부터 184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심각한 경기 침체로, 1830년대의 상당 부분을 포괄했다. 1837년 공황은 금융 위기, 은행 도산, 광범위한 실업, 그리고 장기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특징이었다.

1837년 공황은 "투기 거품"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1929년의 대폭락도 마찬가지였다. 1837년에 그 거품이 꺼지자, 광범위한 파산과 금융 손실을 초래했다. 투기 거품의 여파로 연쇄적인 은행 파산이 발생했고, 이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과 광범위한 금융

공황으로 이어졌다. 국제 무역의 감소와 미국 수출 수요의 하락으로 악화된 세계적 경기 침체도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여했다.

1929년의 주가 폭락은 대공황의 시작을 알렸으며, 그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투기적 거품이 형성되었다. 1920년대 동안 미국에는 급속한 산업 성장, 기술 혁신, 그리고 광범위한 낙관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경제적 번영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는 '광란의 20년대'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투기는 손쉬운 신용, 마진 거래(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 그리고 내재 가치가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 가격 상승에 근거한 투기적 매수에 힘입어 급증했다. 주가는 해당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훨씬 웃도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닷컴 버블'이 붕괴했다. 그 경제 붕괴 기간에 2001년 9월 11일이 있었다. 그 뒤 2008년에는 주택 거품이 붕괴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대침체라고 불렸다.

일요일 법령을 앞두고 미국 시민들의 현세적 번영이 사라진다. 현세적 번영이 거두어지는 일은 14만 4천의 인침의 때 동안에 일어난다. 인침의 때의 첫 번째 이정표는 경제 붕괴로 특징지어졌다. 2001년 9월 11일은 셋째 천사가 능력을 받은 때였고, 그 동일한 천사가 1844년에 임했을 때에도 그 역사는 경제 붕괴로 특징지어졌다. 1844년은 곧 닥칠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며, 2001년 9월 11일은 인침 기간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신다. 1929년의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에 앞섰고 그로 이어졌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 백성 가운데 나태한 방임과 죄악된 불신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왔다. 이 위대한 일에서 나아가 모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데 두려움이 있다. 자금을 지출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금을 사용하고도 그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어떠한가? 우리의 자금 중 일부가 완전히 손실된다면 또 어떠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일하고 계속 일하는 편이 더 낫다. 이것이 형통할지 저것이 형통할지 너는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특허권에 투자하고 큰 손실을 당해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대의에서는 사람들은 모험하기를 두려워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투자된 돈이 즉각적인 수익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손실로 보인다. 지금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너무 인색하게 투자되고 이기적으로 간직되는 바로 그 자금은 머지않아 모든 우상들과 함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질 것이다. 영원한 광경의 실재가 사람의 감각에 열릴 때, 돈의 가치는 곧 순식간에 떨어질 것이다. 더 트루 미셔너리, 1874년 1월 1일.